

올해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

농진청, 주요 노지작물 주산지 9곳서 조성... 2026년까지 약 440억원 투입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약 440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지농작물 생산성 증진 △노지작물 환경 개선 등 3분야 9개 유형으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조성할 방침이다.

노지 스마트농업은 인공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생산환경과 작물의 생육 정보 등을 실시간 수집·분석해 과학적인 영농의사결정을 내리고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 정밀농업을 구현하는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농업생산시스템이다.

우선 △양파(합안군) △벼(당진시) △사과(거창군) △복숭아(육천군) △포도(상주시) △콩(연천군) △밀·콩

(김제시) △대파(신안군) △배추·무(평창군) 등 9개 작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올해는 각 시범지구에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 농기계 자율주행, 작물별·생육 단계별 최적 물관리 등 농촌진흥청이 개발·완성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해 기반을 다지고 현장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경남 함양 양파 재배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기계화모델'은 농기계 자율주행기술 등을 투입해 양파 파종부터 수확에 이르는 농작업의 정밀성·안전성·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충남 당진 벼 재배지에 적용되는 '디지털자동화모델'은 이앙, 논물관리,

방제, 수확 등 재배 전 과정에 디지털 농기계를 활용해 농작업 자동화를 구축한다.

경북 상주 포도 재배지에는 저온·고온 등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측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기 경보·시스 기술을 투입해 '조기경보대응모델'을 조성하고, 무인 방제와 해충 영상진단 기술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경기 연천 콩 재배지에는 작물의 스트레스 지수를 파악하는 영상진단 기술, 재배 시기별 방제 작업 자동화, 토양 양분관리 및 관·배수 정밀기술을 투입해 '수분스트레스관리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 김제 밀·콩 재배지에는 간척

지관리모델'을 구축한다. 간척지 토양의 양분과 수분 함량 제어를 위한 자동 감지기(센서) 기술 및 무굴착 땅속 기술이 적용되고, 농작업 로봇·자율주행 기술 등도 투입한다.

강원 평창 배추 재배지는 고품질 배추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환경 정보에 기반한 최적 물관리, 정밀 양분관리 기술이 적용되고, 드론을 활용한 작황 예측 기술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고령 지관리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지성 과장은 "앞으로 9개 시범지구는 우리나라의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 수준을 가능케 하는 거점이 될 것이다. 시범지구 조성 사업의 내실을 다져 노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북농협과 전북도는 15일 수출 품목별 워킹그룹(원예) 담당자들과 함께 농업전북본부에서 2024년 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전북 농산물 수출확대 힘 모아

전북농협, 수출 품목별 워킹그룹 회의 열어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과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15일 수출 품목별 워킹그룹(원예) 담당자들과 함께 농업전북본부에서 2024년 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수출 품목별 워킹그룹(원예)은 지역농협과 조공법인, 수출업체, 행정, 연구기관 등 전북 농산물 수출에 있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2024년 전라북도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 및 의견을 제시했다.

전북농협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시장 관측행사를 강화하고 기존 베트남, 홍콩, 캐나다, 일본 수출국에 내실을 다지며 신수출국인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에 품목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 수출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은 올해로

5년째 진행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15일 수출 품목별 워킹그룹(원예) 담당자들과 함께 농업전북본부에서 2024년 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특히 고구마는 전북민의 고구마로 만들기 위해 농진청과 협업해 수출용 CA컨테이너 활용을 높이고 수출 전용박스를 개발하여 수출 중에 발생하는 부패를 현저히 낮추는데 힘을 것이다.

김영일 전북농협 본부장은 "전북 농민이 애써 키운 전북의 신선농산물을 해외시장에서 제값 받고 팔수 있게 전북농협이 만들 것이며 수출물류비 폐지에 따른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전북도청과 힘을 모아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스마트 혁신으로 수출입 기업 지원"

박재석 신임 전주세관장

전주세관은 제 43대 박재석 전주세관장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15일 밝혔다.

박 세관장은 취임사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전북지역의 무역적자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관내 수출입 제조·물류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시작으로 관세행정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끊임없는 스마트 혁신을 통해 수출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공직자로서 업무 전문성 강화에 힘쓰고 청렴한 자세를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직업 상호 간 존중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세관장은 1995년에 관세청에 임용돼 서울세관 심사국을 거쳐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국, 관세청 심사정책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뉴스시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통한 판로활성화 추진

2024년 공공기관 대상 전북지역 설명회 진행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창업기업제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독려하고자 전북 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8일 전북중기청 4층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에 근거해 중소기업제품 당해연도 구매목표비율이 포

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해당연도 1월말까지 통보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을 통보해야 하는 대상은 2011년 282개 기관에서 2012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해 495개 기관 등으로 확대됐고, 2014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추가돼 740개 기관으로 늘어났으며, 2023년에는 관리 대상 구매기관이 849(전북 35)개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및 구매실적 관련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자료, 다양한 구매목표 비율제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전북중기청 안태용 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공공기관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를 포함한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솔선수범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옥기기자

전북도, 2024년도 조사료 생산에 650억 지원

재배면적 최대확보 등 양적성장 기반 생산성 향상 도모

전북도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경감과 조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2024년도 조사료 생산에 국비 212억을 포함 650억을 지원한다.

도는 작년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워진 축산농가를 위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2022년 2만4,000ha에서 2023년 3만1,000ha로 큰폭으로 늘려 55만2,000톤의 조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했다.

올해는 작년 조사료 재배면적 최대 확보 등으로 인한 양적성장 기반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우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에 406억원, 기계 장비에 71억원, 종자 구입에 63억원을 지원해 작년보다 11억 증액된 총 650억을 지원하고, 조사료 재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단지 1,500ha에 추가로 입모종과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 등을 활용한 입모종파종 추가 지원은 동계조사료를 베가 서 있는 상태에서 종자를 먼저 뿌리는 것으로 적기에 파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가을철 강수량이 대폭증가하는 이상기온 등에 대비할 수 있고 조사료의 월동과 수확량에 큰 도움이 된

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은 축산농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을 유도해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수입조사료 대체를 위한 궁극적인 목표이다."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대출 한도 유보분 2854억 활용

한은 전북본부, 지역 중소기업에 한시적 특별 금융지원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 한도 유보분 2854억원을 활용, 전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융비용 부담 증대 등으로 취약 업종 및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 사정 및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선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한은 전북본부는 조치 도입을 위해 소요되는 금융기관의 전산 개발 관련 준비기간과 실제 정책집행시차 등도 고려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7월 31

일까지(6개월간) 사전 설정요건(업종, 신용등급 등에 부합하는 금융기관(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 취급 실적 기준 10억원이다.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업종(주정업, 부동산 등)은 배제되며,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신용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한은 전북본부 관계자는 "한시 조치를 통해 긴축 기조 하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금융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